쑥쑥 크는 '토종 CRO' … 외국계 앞질렀다

〈임상수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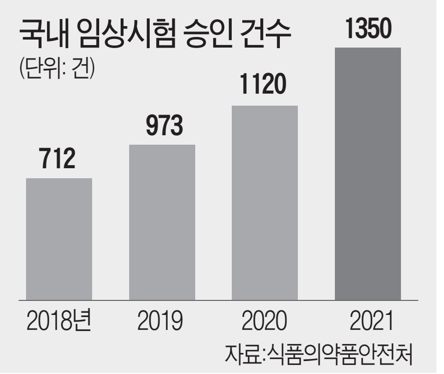
임상은 의약품을 내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약물 자체의 효능뿐 아니라 환자 모집, 투약 등 임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꼽힌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임상 대행이 주업인 임상수탁기관(CRO)을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다. 최근 국내 CRO업계의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외국계 CRO업체들이 주도하던 시장이 국내 기업으로 중심축이 바뀌고 있어서다.

◈신약 개발로 영역 확장한 토종 CRO

24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CRO 시장 규모는 55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9개 국내 CRO 기업이 올린 매출은 2844억원이었다. 세계 1위 기업인 아이큐비아, 2위 코반스 등 20개 외국계 기업들의 매출(2698억원)을 추월했다. 2016년 국내 기업 매출(1168억원)이 외국계 기업 매출(2604억원)의 45% 수준에 그쳤지만 4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 업계에선 국산 CRO 업체 수를 약 50곳으로 추산한다.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CRO 시장에서 국내 시장 규모는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가 큰 유럽, 미국 등에서 임상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카서스인(백인)을 대상으로

자료: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계가 장악했던 CRO 시장 국내업계 가성비로 판도 뒤집어

시판 후 조사 위주서 벗어나 신약 임상 수주도 크게 늘어

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미국 유럽 등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유럽 미국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CRO를 선호해온 이유다.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신약 임상의 초기 단계인 연구자 임상, 임상 1상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계약 수주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내 CRO 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임상 계약 단가가 5년 전엔 외국계 대비 30~40%에 불과했지만 최근엔 7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했다.

◈美 임상 2상으로 영역 확장

국내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진 데는 신약 개발사들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 진출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외국계 CRO와 앞다퉈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해외 대형 CRO 입장에서 국내 고객사는 대형 제약사와 비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름값보다는 국내 기업에 중요도를 높게 두고 임상을 섬세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CRO 업체를 선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국내 기업들엔 호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712건이었던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지난해 135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 상한금액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제약사들이 약가를 최대한 받기 위해 임상 입증 자료 확보에 공들이고 있는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에이디엠코리아와 씨엔알리서치 등 국내 CRO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 점도 매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후기 임상 역량을 갖춰야 하는 건 숙제다. 임상 1상은 모집 환자 수가 적어 국내에서도 백인 대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수백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 임상부터는 백인 등 다인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국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만 머물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씨엔알리서치는 연내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씨엔알리서치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임상 1·2상을 대행해주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주현 기자

자가진단키트 만드는 젠바디 삼성 덕에 생산량 50% '껑충'

스마트공장 전문가 19명 파견 젠바디 新공장 짓는데 큰 도움

정부는 이달 초 젠바디와 수젠텍에 항원검사시약(자가검사키트)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자가검사 키트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서다. 구원투수로 나선 곳은 삼성전자였다. 대규모 생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였다.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에 있는 젠바디 사업장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 19명을 급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수젠텍에도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설비당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30%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 완성된 진단키트가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재배치하고,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젠바디가 건설 중인 신공장이 빠르게 양산체제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도 맡는다. 오는 4월 말 가동 예정인 신공장이 생산에 들어가면 젠바디의 자가진단키트 생산량은 주당 300만 개에서 600만 개로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때마다 국내 중소기업은 삼성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다. 2020년 2월 '마스크 대란'이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동이 나자 삼성전자는 마스크 제조 업체 네 곳에 생산 전문가 50여 명을 파견해 두 달 만에 생산량을 51%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5월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제조 업체들이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도 삼성이 나섰다. 솔젠트와 코젠바이오텍은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뒤 주당 진단키트 생산량을 70% 이상 늘릴 수 있었다.

주사기 생산기업 풍림파마텍도 비슷한 사례다. 백신 잔량이 거의 남지 않는 'LDS 주사기'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삼성의 지원을 받았다. LDS 주사기는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 지렛대'로도 활용했던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일(코로나19)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수빈 기자

신일전자 팬히터 판매 '불티'

겨울에 2만2000대 … 1년새 3배

신일전자는 이번 겨울 시즌 팬히터 출고량이 2만2000여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달까지의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다.

신일의 팬히터는 수년간 캠핑 마니아 사이에서 동계 캠핑의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전국 각지의 캠핑장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2020년 준비 물량이 두 달 만에 동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지난해부터는 추가 물량을 긴급 확보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신일 팬히터는 저전력으로 최대 발열량을 내 전력량이 제한된 캠핑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등유 난로에 팬이 내장된 제품으로 실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만족스러운 난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신일전자 관계자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팬히터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블루투스 탑재한 '지니봇' … 양방향 코딩 교육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지니로봇, 비대면 학습효과 높여 실시간 원격평가·피드백도 가능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니로봇은 양방향 통신 기능을 탑재한 코딩 로봇이 주력 제품이다. 다양한 학습 기능을 보유한 코딩 로봇에 실시간 원격 화상 평가 및 피드백 기능까지 갖춰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니로봇이 2020년 5월 출시한 '지니봇'(사진)은 로봇 코딩을 통해 유아 및 초·중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 교육용 로봇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 내용 평가 및 실시간 피드백 기능을 구현했다. 지니로봇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LIMS 엔진 기반 비대면 화상 솔루션 교육 플랫폼인 '지니클래스'를 통해 지니봇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코딩 수업도 가능하다.

지니로봇 관계자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지도하면서 역동적인 교실 현장을 재현할 수 있다"며 "코로나 이후 등교 중단 등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니봇은 코딩 로봇으로서 기본기도 탄탄한 편이다. 이 제품은 카드 점자, 음성, 그리기·음악 등 기존 교육용 코딩 로봇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았다. 최대 17대의 지니봇을 연결해 학습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니봇을 이용한 학습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모바일 앱 또는 PC와 지니봇을 블루투스로 연동해 로봇의 행동을 코딩하는 방식이다. 또 지니봇 본체에 설치된 광학인식센서(OID)에 실물 카드를 접촉해 로봇의 행동을 코딩할 수 있다. 지니봇 하단에 탑재된 3축 가속도 센서를 통해 손목의 움직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코딩이 가능하다.

지니로봇은 지니봇 출시 첫해인 2020년 8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13억5000만원으로 매출이 뛰었다. 국내에선 천재교육, 렌쥴리에듀테인먼트 등에 지니봇을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출의 약 40%를 수출로 얻고 있다. 폴란드 태국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지니로봇 관계자는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등에서도 현지 교육업체들과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벤처캐피털 손잡고 혁신 플랫폼 만들겠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기업을 힘들게 하는 조치가 노동을 돌보는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진식 신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24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 회원사 만장일치로 그를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2월까지다.

최 회장은 한국 사회에 있는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넘쳐나는 '반기업정서'에 근거해 구축된 법과 제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앞만 보고 달린 성장의 그늘을 기업 스스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외면해 온 문제들을 마주하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주요 구성원인 직원들과 상생 노력도 하겠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15년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4600만원 초과 시 24%, 8800만원 초과 시 35%로 고정돼 있다"며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벤처캐피털과 협업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연결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증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쌍용그룹 계열사 쌍용정공을 인수해 오늘날 연매출 1조2000억원의 세계적인 합금철 전문기업 SIMPAC으로 키워냈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을 이끌고 2014년 중견련 출범, 2015년 중견기업연구원 설립 등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중견련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중견련은 2014년 7월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회원사는 800여 개사다. 중견기업들은 국내 총 매출의 16.1%, 고용의 13.8%, 수출의 18.2%를 담당한다. 김진원 기자

부동산 광고문의 (02)365-3000

전통한옥 (정말 잘 지은집) 매매시 수고비 충분히 드림 중개환영
대 872㎡ 매가 8억5천
전 801㎡ 조망, 조경 최고
건평 133.38㎡
주인 010-8961-7560

비상장주식 판매사를 모십니다
저희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 성장자문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판매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열인베스트먼트
T. 02-3439-9403 M. 010-4597-9978

• 담보자금
• 잔고증명
• 법인설립
• 어음할인
• 법인증자
010-5934-2155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22년 2월 25일
(주)신한로지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박성면

제5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자본금 감소(강제·유상소각)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2년 2월 25일
주식회사 정도
대표이사 정혜란

자본금 감소(강제·유상소각)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2년 2월 25일
주식회사 다후
사내이사 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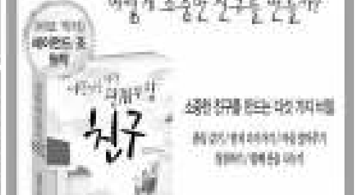
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2월 25일
(갑) 유안타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수용
(을) 주식회사 웨이버스
대표이사 김학성

대사관 차량 매매
1) 차종 :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 색 상 : 흰색
• 제작년도 : 2012
• 주행거리 : 135,000km
• 상 태 : 양호
2) 차종 : 제네시스 G330
• 색 상 : 검정
• 제작년도 : 2015
• 주행거리 : 118,000km
• 상 태 : 양호
3) 공통 : 우편동봉접수
(이름, 연락처, 희망매입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48, 주한카타르대사관 대외협력실
• 접수기간 : 공고 기재일부터 일주일 개별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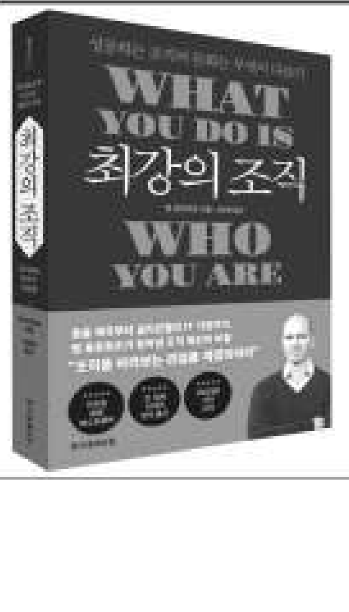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2년 2월 25일
주식회사 유베이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2022년 2월 25일
교사한국 주식회사

20만 독자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관계의 힘〉 어린이판!
어떻게 소중한 친구를 만들까?



《하드씽》 저자 벤 호로위츠 신작!
"성공하는 조직은 무엇이 다른가?"
세계 최고 벤처캐피털 a16z의 공동창업자,
맨땅에서 창업해 16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키운 CEO,
벤 호로위츠가 전하는 경영 전략의 정수



☑ 리드 헤이스팅스가 DVD 사업 담당 임원들을 회의에서 배제한 이유
☑ 경쟁력과 속도를 중시한 우버가 간과한 것
☑ 구글의 미래를 고민하던 래리 페이지가 내린 결정과 그 이유
☑ 아마존이 고유한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린 스타트업》 저자 에릭 리스 추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조직의 문화는 무엇이 다른가 최강의 조직
벤 호로위츠 지음 | 김정혜 옮김 | 값 18,000원 | 한국경제신문